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

- 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야의 <대륙>을 중심으로 -

고 명 철*

차 례

- | | |
|----------------------|------------------------|
| I. 만주, 식민주의 담론들의 각축장 | III. 만주국의 식민 경영과 반식민주의 |
| II. 식민주의 담론들의 충돌과 반식 | 적 저항의 서사: 한설야의 <대륙> |
| 민주의적 저항의 서사: 이태준의 | IV. 맺음말 |
| <농군> | |

I. 만주, 식민주의 담론들의 각축장

동아시아의 20세기는 일본의 식민주의 지배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에서 연거푸 대승을 거둔 일본은 서구의 근대와 맞서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배력을 소유한 제국으로 등장한다. 특히 러일전쟁의 승리는 서구의 근대를 섬취하며 발빠르게 근대로 이행해간 일본으로 하여금 서구의 근대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주체적 능력으로 서구의 근대와 맞서 이길 수 있

*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고, 서구식 근대와 다른 또 다른 문명의 양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의식을 갖도록 한다. 물론 여기에는 “서구식 근대화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일본만이 서구식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¹⁾ 제국의 식민주의 지배 욕망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러일전쟁에서 거둔 일본의 승리는 동아시아 식민주의 지배를 위해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서구 열강을 비롯하여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미친 정치경제적 파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마침내 한반도를 식민화하고(1910), 만주사변(1931)을 일으킨 후 만주국(1932)을 세운다. 일본은 만주국 건립을 통해 동아시아 식민주의 지배 욕망을 현실화시켜나간 것이다. 일본에게 만주는 제국으로서 성장할 군사적 요충지이며, 정치경제적 자원을 새롭게 제공해줄 수 있는 신천지인바, 일본의 새로운 식민주의 경영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지역으로 부각된다.²⁾

그런데, 만주국을 통한 일본의 식민주의 지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주의 통치 방식과 크게 구분되는 점이 있다. 만주국 건국 초기의 이념 중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족협화’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 만주국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복합민족국가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다.³⁾ 만주국의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레 일본으로 하

1) 고토 겐이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 『아시아』, 2008년 봄호, 315쪽.

2) 일본이 만주국을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만주는 소련에 대한 군사 전략적 거점이라는 관점이다. 러일전쟁이래, 러시아(1917년 이후는 소련)의 남하를 경계해온 군사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중공업 발전을 위한 자원 보급지라는 경제적 관점인데, 만주에는 풍부한 자연자원이 미개발로 남아 있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셋째는 제국의 과잉인구를 소화하는 이민지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이식민정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만주사변 후 ‘민족협화’ 이념이 강조된 배경에는 이 관점에서 이민정책의 강화를 부르짖었던 것에 한 원인이 되었다. 넷째는 조선에서 탈출한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의 하나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조선의 치안문제와 연결된 관점이었다.”(호사카 유우지,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제이엔씨, 2002, 286쪽)

여금 만주에 대한 식민주의 지배의 복잡성으로 인한 온갖 문제점을 낳게 한다. 그것은 재만조선인에 대한 식민주의 정책의 모순과 불합리성으로 극명히 드러난다. 분명, 만주국은 건국 초기부터 만주의 지정학적 특성과 정치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민족협화'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그것을 일본의 새로운 식민주의 담론으로 부각시킨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일전쟁(1937) 이후 일본의 공식적인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조선농촌의 과잉인구를 해소하고 일본 본토로의 조선 이주민을 통제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이민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의 원활함을 위해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南次郎)는 '선만일여(鮮滿一如)' 담론을 정식화한다.⁴⁾ "선만일여는 조선총독부의 핵심 방침 가운데 하나로서 당시의 '최고時務'인 내선일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동반해야 할 기본지침"⁵⁾으로 중요성을 띤 담론으로 인식된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재만조선인에 대한 식민주의 지배를 위해 동원하는 주요 담론은 민족협화, 선만일여, 내선일체이다.

여기서 이러한 식민주의 담론들 사이의 충돌로부터 심각한 문제점이

-
- 3) 만주국의 복합민족국가의 면모는 "1940년 <만주국>의 臨時國勢調査에 의하면, <만주국>의 총인구는 4,300만 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漢族이 3,700만 명(86%), 만주족이 270만 명(6%), 回族(이슬람族)이 200만 명(5%), 몽고족이 100만 명(2%), 조선인이 150만 명(3%), 일본인이 82만 명(2%), 러시아인이 7만 명이었던다고 한다." (만주국사편찬간행회 편, 『만주국가(各論)』, 만몽동포원호회, 1971, 58쪽; 윤휘탁, 「<만주국>의 '2등 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집, 2001, 140쪽 재인용)
 - 4) 미나미 조선총독은 1937년 4월 도지사회의에서 國體明徵, 教學振作, 農工並進, 庶政刷新, 鮮滿一如를 5대 정강의 하나로 발표한다. "맹방 만주국 건전한 발달의 옹호야 말로 우리 帝國 國策의 中心이고, 또 日滿 不可分의 宏圖는 滿洲國 建國의 根本精神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만주국에 접양하여 日滿關係에서 반도의 접하는 지위는 특히 중요합니다. 즉 日滿一體 必然의 內容으로서 鮮滿一如의 實體의 成立을 切要한 것입니다." (水野直樹 編, 『朝鮮總督諭告・訓示集成』, 4, 녹음서방, 2001, 192-193쪽; 신주백, 「만주인식과 파시즘 국가론」,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방기중 편), 혜안, 2005, 139쪽 재인용)
 - 5) 신주백, 위의 글, 139쪽.

돌출된다. 식민주의 각 담론들 자체는 나름대로의 내적 논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재만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식민주의 담론들은 서로 부딪치는 과정 속에서 심한 균열이 나고, 심지어 식민주의 자체를 내파(內破)하는 동인(動因)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우선,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제국의 지배적 주체가 스스로 드러내듯, 민족협화는 만주를 무대로 한 일본의 식민지 경영의 주도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식민정책의 일환이라는 것,⁶⁾ 그리고 재만조선인은 한반도의 피식민자와 동일한 입장에 있지는 않았으며, 만주국의 또 다른 식민주의적 타자로서 만주국으로 습합된 제국의 식민정책의 지배를 당해왔다는 것, 그 과정에서 선만일여와 내선일체는 한갓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도리어 재만조선인은 선만일여와 내선일체 담론의 충돌 속에서 만주의 약소자로서의 현실을 감내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⁷⁾ 바꿔 말해 “만주국이라는 곳은 조선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만주 자체도 아닌 일종의 제3의 허구”⁸⁾인바,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의 민족협화 담론에 의해 그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만주국의 국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선일체 담론에 의해 황국신민으로서 만주국에서 일본인과 함께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선만일여 담론에 의해 제국과 만주국이 공존공영해야 한다는 것을

6) “우리나라의 만주에 대한 농업이민은 필요하며 피할 수 없는 요구이다. 즉 만주국 건국의 대정신인 「오족협화(=민족협화:필자주)」의 이상향을 출현시켜, 日滿 불가분의 관계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일본인 이주 정착이 절대로 필요하다. 일본민족이 신 만주제국의 중요한 구성분자를 이루어 항상 지도적 입장에서 오족협화의 대업달성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이것은 인위를 초월한 일종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東郷實, 『人口問題と海外發展』, 일본청년관, 1936, 354쪽; 호사카 유우지, 위의 책, 286쪽 재인용)

7) 재만조선인은 만주에서 일본인 다음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기는커녕 만주국 정부로부터 온갖 민족적·인종적 차별을 받는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재만조선인을 만주에서 중간자 혹은 2등 국민으로 보는 것은 재만조선인의 구체적 실상을 몰각한 관념적 인식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출판부, 2007 개정판 및 윤취탁, 위의 글 참조.

8)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663쪽.

실현하는 주체로서 새롭게 인식되는 것도 아닌, 만주-일본-조선으로부터 모두 내몰린 약소자에 불과할 따름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말의 만주국은 이처럼 동아시아의 식민지배를 향한 제국의 욕망이 첨예히 드러난 곳인데, 이 욕망의 실현을 위해 식민주의 담론이 더욱 정교해지는가 하면, 식민주의 담론들 사이의 충돌로 인해 도리어 그 자족성을 갖는 내적 논리가 균열이 감으로써 제국의 파시즘 체제를 내파(內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징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문제적 공간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 전도(顛倒)될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는 셈이며, 예의 문제적 공간에 주목한 작가의 서사적 실천을 주목해야 한다. 이태준의 단편 <농군>(『문장』, 1939. 7)과 한설야의 장편 <대륙>(『국민신보』, 1939. 6. 4~9. 24)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이, 작품을 통해 파시즘의 전횡이 가속화되는 일제말의 식민지배에 저항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친일적 글쓰기로 수렴), 그나마 저항의 형식마저 '우회적 글쓰기-침묵(혹은 절필)-망명'⁹⁾의 특성을 갖기에 저항다운 저항의 서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일제말의 대부분 작품을 식민주의 담론에 포섭된 채 제국의 시선이 삼투되어 있는 것으로 읽을 수만은 없다.¹⁰⁾ 비록 제국의 바깥을

9) 김재용은 일제말 한국문학의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의 글쓰기를 '우회적 글쓰기, 침묵(혹은 절필), 망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식화하고 있다.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10) 이러한 시각의 기저에는 식민지 근대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민족주의로 점철된 한국문학사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분명,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일제말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시각은 소중한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일제말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국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일제말의 거의 모든 문학을 포괄하는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일제말의 한국문학이 식민지 근대의 복잡다기한 양상을 현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일제말 한국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일면적 시각일 뿐이다. 여기에는 식민주의의 정

쉽게 넘어설 수는 없되, 제국의 내부에서 식민주의 담론이 갖는 문제점을 적확히 응시하면서, 그것들 사이에 균열을 내고 내파(內破)하는 서사적 실천의 가치를 애써 폄훼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식민주의를 내파하는 서사적 특질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야의 <대륙>을 통해 식민주의 담론들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모순과 균열에 착목하면서 “이들 모순과 균열이 바로 저항의 거점 혹은 탈식민의 계기”¹¹⁾로서 갖는 서사적 가치를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일제말 더욱 전횡적(專橫的) 폭력을 강제하는 파시즘 식민지배의 현실에서 제국의 시선을 취하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검열을 피해 제국의 식민주의를 내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제국의 시선을 피하면서 제국을 향해 그 시선을 ‘되받아치기’하는 서술전략으로써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를 구현하는 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제말 반식민주의 저항의 일환으로 탐구되고 있는 만주와 연루된 서사의 특질이 규명되었으면 한다.

교함에 대한 주목만 있을 뿐, 그 정교함을 지탱시켜주는 담론들 사이의 충돌에서 불거지는 균열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그 균열에 대한 정밀한 탐구야말로 일제말 문학 연구, 즉 식민주의 문학 연구에서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이에 대한 구체적 비판은 작품을 논의하면서 언급하기로 한다. 일제말 만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제국의 시선으로 규명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철,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9집, 2002; 김성경,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민족문학사연구』, 2004년 봄호;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윤대석, 『‘만주’와 한국문학자』,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11) 하정일,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25쪽.

II. 식민주의 담론들의 충돌과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 이태준의 <농군>

1. <농군>의 서술전략과 '만보산 사건'의 서사적 진실

이태준의 <농군>과 식민주의의 관계가 문제적인 것은 <농군>의 서술전략에 대한 접근 시각의 차이에 있다. 이 서술전략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농군>보다 먼저 씌어진 기행문 <이민부락견문기>(*『조선일보』*, 1938. 4. 8~21; 이후 1941년에 간행된 수필집 <무서록>에는 <만주기행>이란 제목으로 변경하여 수록)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농군>은 제국의 시선에 포획된 서사로 자리매김되는가 하면,¹²⁾ 제국의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서사로 정립된다.¹³⁾

여기서 우리는 이태준이 만주라는 동일한 대상을 향해 서로 다른 속성의 서사물(기행문과 소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두 서사물 모두 제국의 시선이 두드러지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농군>을 제국의 만주에 대한 식민주의 지배, 즉 “‘만주국’의 협화적 이상을 충실히 재현”¹⁴⁾하고 “‘만주이데올로기’의 문학적 구현”¹⁵⁾으로 주저없이 평가할 수는 있다. 그리고 <농군>을 “쌀농사에 대한 만주인의 무지가 조선인 박해의 배경임을 암시하고 있”¹⁶⁾으므로, 이 작품 역시 제국 식민주의자의 시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농군>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만주에

12) 김철, 김예림, 윤대석의 위의 글은 이러한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13) 김재용, 하정일의 위의 글 및 홍기돈, 「식민지 말기 이태준의 소설과 백산 안희제」, 『근대를 넘어서려는 모험들』, 소명출판, 2007 등이 이 같은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14) 김철, 위의 글, 144쪽.

15) 김철, 같은 글, 145쪽.

16) 윤대석, 위의 글, 209쪽.

대한 이태준의 두 서사물의 서술전략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군>에서 보이는 ‘만보산 사건’에 대한 서술태도와 <이민부락견문기>에서 보이는 그것이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농군>에서는 작품의 결미에서 비장하게 형상화하고 있듯, 만주의 순경이 쏜 총을 맞고 조선인 노인이 죽지만, <이민부락견문기>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서술한다. 사실에 대한 서로 상충되는 서술태도를 문제삼아, 이태준의 <농군>이 제국과 동일한 시선을 갖는 것으로 쉽게 간주하고, 만주인을 향한 제국 식민주의자의 인식을 갖는 것으로 규정해서는 곤란하다.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는 <이민부락견문기>를 통해 그 사실을 적시하고 있듯, <농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반복하여 서술하는 게 아니라 ‘만보산 사건’을 허구적 서사물 안에 재배치함으로써 그 사건이 재만조선인은 물론 식민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식민자에게 어떠한 삶의 진실로 재해석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서사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여기서 <농군>의 서술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게 있다. <농군>의 서두에는 “이 소설의 배경 만주는 그전 장작림정권시대임을 말해 둔다”¹⁷⁾라고 하여, <농군>은 1920년대의 만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씌어진 시기는 1939년으로 중일전쟁 이후 파시즘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역사적 국면에 해당한다. 작품의 배경은 만주국 건국 이전인데, 작품을 집필하는 시기는 일제의 만주특수(滿洲特需)로 조성된 만주개발을 향한 조선 이주민이 ‘국책이민’의 차원에서 장려되던 시기다. <농군>은 창작배경과 집필시기를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이태준의 서술전략이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농군>에서 재만조선인은 만주인들과 농사짓는 문제로 마찰을 빚고,

17) 이태준, <농군>,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민족문학연구소 편), 역락, 2007, 189쪽. 이하 이 작품의 부분과 <이민부락견문기>의 부분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각주 없이 본문에서 (쪽수)만을 표기한다.

마적의 위협에 노출되더니, 급기야 만주 순경의 총에 죽음을 당하는데,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장작림정권, 즉 만주의 군벌에 있는 것이지, 만주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작품의 표면상 보여준다.¹⁸⁾ 말하자면, 재만조선인의 비극은 만주의 군벌이 만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작품의 표면상 부각시킴으로써 제국의 시선을 취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이태준이 정작 겨냥하고 싶은 것은 그가 만주기행을 통해 직접 목도하고 온 1930년대 후반 일제말 재만조선인의 현실이다. 자의반타의반 조선을 떠나 '국책이민'으로 이주한 만주에서 부딪는 피식민자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재만조선인의 생존 문제를 통해 민족협화, 선만일여, 내선일체의 식민주의 담론이 갖는 허구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장작림정권을 <농군>의 배경으로 삼아(즉 제국의 시선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이태준의 서사적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식민주의 담론이 갖는 문제성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재만조선인이 온갖 위협 속에서도 황무지에 붓도랑을 파고 논에 물을 대고자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을, 제국의 만주를 개발하는 국책사업의 맥락으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조선사람들은 현정부(縣)로부터 현지사(縣)의 인이 찍힌 거주권과 개간권의 허가장을 내어 보였”(202쪽)

18) 일본은 만주국을 식민 경영하는 데 무엇보다 만주국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그 과정에서 만주국은 중국의 군벌체제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데, 중국의 군벌을 만주국의 건국·통합·유지를 위해 배제되어야 할 타자로 정책화한다. “만주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군벌체제를 주된 것으로 선택한 것은 두어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초기 만주국은 반국가 저항자로부터 안보문제를 안고 있었다.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은 가상적인 것인데 비하여, 비적들로부터의 것은 실제적이었다. 과거 군벌체제는 현실적인 안보문제에 연결될 수 있는 품목이 되었다. 군벌체제의 잔당이든 아니든, 모든 반국가 세력은 ‘인민을 착취한 군벌체제’의 후손으로, 따라서 악으로서 연상되었다. 과거 군벌체제의 ‘가정(苛政)’은 군벌체제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생생한 교과서의 구실을 했다. ‘새 만주국’은 군벌체제의 ‘학정(虐政)’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한석정, 위의 책, 140-141쪽)

지만, 만주인은 “그런 관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저희 관청 문서를 무시하고 덤뻐다”(202쪽)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만조선인은 공식적으로 만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작 그 권리는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 만주에서의 ‘내선일체’와 ‘선만일여’는 재만조선인에게 현실성을 보증해주지 못하는 식민주의 담론의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재만조선인에게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과제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만주에서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재만조선인은 “사생결단”(202쪽)의 비장함을 갖고 만주에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작품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되, 1931년 일제에 의해 조작된 만보산 사건¹⁹⁾의 추이를 잘 알고 있는 이태준은 <농군>에서 재배치된 만보산 사건을 통해 만주국을 통한 제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재만조선인의 현실을, 제국의 시선을 빌려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국을 향해 예의 식민주의 담론이 갖는 무력함을 절묘히 내파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노인의 시체를 두 팔로 쳐들고 둔덕으로 뛰어 올랐다.

‘아!.....’

창권은 다시 한번 놀랐다. 몇 달째 꿈속에서나 보던 광경이다. 일망무제, 논자리마다 얼음장처럼 새벽 하늘이 으리으리 번뜩인다. 창권은 더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어 노인의 시체를 안은 채 광 주저 앉았다. 그러나 이내 재우쳐 일어나 어머니와 아내에게 부축이 되며 주먹을 허공에 내저으며 뭐라고인지 자기도 모를 소리를 악을 써 질렀다. 위쪽에서 위쪽에서 악들을 쓰며 달려 내려온다.

물은 도랑 언저리를 철버덩 철버덩 떨귀 휩쓸면서 열두 넓이가 뿌듯하게 내리 쏜다. 논자리마다 넘실 넘실 넘친다. 아침 햇살과 함께 물은 끝없는 별판을 번져 나간다.(207쪽)

만주에 존재하는 온갖 위협을 견뎌내고, 제국의 그토록 현란한 식민주

19) 박영석, 『만보산 사건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의 담론의 이렇다할 지원 없이 재만조선인은 주체적 역량으로 값비싼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황무지의 논에 물꼬를 튼다. 이것은 재만조선인의 생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주인(정확히 말해 만주의 변두리에서 약소자로 삶을 살고 있는 만주인)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물길을 내는 일이다.²⁰⁾ 즉, 이태준은 <농군>을 통해 허울뿐인 민족협화를 전복하고 만주에서의 새로운 공생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2. 만주의 변두리, 반식민주의 저항의 전략적 거점

이태준의 이러한 공생공존의 가능성을 향한 새로운 모색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만주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의 삶터에 주목하고 있다

20) 재만조선인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주의 황무지를 아무 대책없이 개발욕에 눈이 어두워 개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만주의 현지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자 개간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가령, 소설의 다음과 같은 서술 부분에서 조선인의 황무지 개간에 대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만주국의 식민주의 지배를 위한 권력 서열 관계에 의한 민족협화와는 그 성격이 다른, 만주에서도 변두리에서 약소자의 삶을 살고 있는 현지인과 공생공존하는 것을 모색한다.

① 더구나 여기 토민들 가운데는, 이통허보다 여기 지면이 높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암만 붓도랑을 내도 물이 올 리가 없다고 장담을 하는 패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채심이란 전에 조선에서 세부측량 때 측량 기수도 따라 다 녀본 사람이다. 그가 지면고저에 어두울 리가 없다.(204쪽)

② “여러분, (중략) 우리만 살자구 남을 해치는 일이면 우리가 천벌을 받아두 마 땅하오. 그렇지만 물만 들어와보우. 여기 토민들도 다 몽리가 되는데 야뇨? 우린 걱정한 대루 나갈 수밖에 없소. 낮에 일할 수 없음 낮엔 자구 밤에들 나와 악을 쓰고 파시오. 벌이구 모레구 웬만만하면 물부터 끌어 넣고 보시오…….”(205쪽)

21) “일본과 조선이 가진 제국과 식민지라는 서열적 시선을 만주에 투영시켰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만주를 통해 조선인은 제국적 질서 속에서의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고, 조선인의 경제적 이득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배주영,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한국학보』, 2003년 가을호, 56-57쪽)

는 점이다. 만주의 변두리아말로 이태준에게는 제국의 식민주의 지배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불온한 경계의 공간으로, 이태준은 이 공간을 통해 제국을 지탱시켜주는 식민주의의 온갖 담론의 모순과 균열로부터 식민주의를 내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서사화하고 있다. <농군>의 주요 공간인 장자위푸(姜家窩棚)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거점이다. 말하자면, 장자위푸는 재만조선인과 만주인이 만주 개간을 둘러싸고 부딪치는 대립·갈등의 공간으로만, 또는 재만조선인을 통해 만주를 개발하고자 하는 제국의 지배욕망을 실현하는 식민주의 공간의 속성을 띤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농군>에서의 장자위푸란 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부락견문기>와 함께 숙고해보아야 하며, <이민부락견문기>에서 의미화된 장자위푸가 <농군>에서는 어떻게 서사적으로 전유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민부락견문기>에서 주목되는 공간은 봉천, 신경, 장자위푸다. 봉천과 신경은 만주의 근대적 문명의 빛을 발산하는 중심부이며, 장자위푸는 아직 근대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만주의 변두리다. 이태준은 <이민부락견문기>에서 만주의 중심부인 근대적 풍경에 유별난 관심을 쏟는다. 그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근대적 풍경은 제국의 식민지 근대화를 향한 막연한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우선, 봉천역에서 그는 봉천을 거쳐 중국과 만주의 도시로 “눈썹을 그리며 미루꾸를 씹으며 무심한 체 즐거이 먼먼 타국에 끌려가는 젊은 계집들”(123쪽)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비린내 끼치는 살에나마 새삼스런 골육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123쪽)은, 제국의 피식민자가 제국의 식민지 근대화를 지탱시켜주는 희생양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 모종의 자괴감을 갖는다. 그도 그럴 것이 봉천에는 “고아, 걸인, 빈민, 그리고 예술부(藝妓)의婦, 창기, 사생아, 이런 불우한 인생 칠백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대규모의 자선기관”(125쪽)으로 “특서(特書)할 봉천 명물의 하나”(126쪽)인 ‘동선당’이 있는 곳인데, 이러한 복지 혜택을 재만조선인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만주국은 건국 초기부터 중국 군벌의 폭정으로 파폐해진 인민의 삶을 각종 복지 정책을 통해 구호한다는 미명 아래 이른바 '식민지관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워나갔다.²²⁾ 그런데, 만주국의 복지정책은 '식민지관 복지국가'라는 호명에서 알 수 있듯, 만주국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일본의 식민주의 지배의 일환이며, 조선처럼 만주국을 식민화하기 위해 용이주도하게 꾸려나간 식민정책의 하나에 불과하다. 더욱이 만주국에서 재만조선인의 사회적 지위가 민족협화와 선만일여라는 식민주의 담론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는²³⁾ 사실을 환기해보건대, 이태준이 봉천에서의 근대적 풍경에 대해 정작 드러내고 싶은 것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에서도 식민지 근대화가 초래한 삶의 암울한 풍경들이다.

이러한 암울한 풍경들은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의 밤 풍경과 포개진다. 댄스홀, 여관, 카바레를 채우고 있는 “이국적인 풍정(風情)”(129쪽)을 대하며 만주국의 근대적 풍경의 단면을 마주하지만, 화려한 근대적 풍경의 이면에는 “영하 40도의 추위와 긴긴” “하루 저녁 지키는데 일 원 몇십전, 백계 노인(露人)들만의 단골 직업”(130쪽)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지 않다. 백계 노인, 즉 만주국의 약소자들이 만주국의 근대적

22) 한석정, 위의 책, 143-156쪽 참조.

23) 재만조선인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각주7)을 참조할 수 있다. <이민부락건문기>에는 재만조선인들의 만주국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직간접적 언술이 곳곳에 드러난다. 가령, 만주인들은 중국 군벌이나 마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재만조선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교육 면에서도 재만조선인들은 만주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감내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에서 일본의 황국신민으로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만주국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증받지도 못한 채 만주국의 변방으로 내몰리는 약소자의 삶을 살았다.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만주국>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족협화 및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조선계 학생이 일본계 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조선계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으며, 중국계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었다.”(윤휘탁, 위의 글, 157-158쪽)

풍경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고 있음을 이태준은 응시한다.

정리하면, 이태준이 만주국의 근대적 풍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의 근대적 풍경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기는커녕 식민지 근대화의 암울한 풍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암울한 풍경에서 재만조선인을 비롯한 약소자들은 근대적 도시를 구성하는 한갓 정태적 풍경에 불과하다.

하지만, 봉천과 신경에 이어 등장하는 만주국의 변두리에 위치한 장자위푸는 비록 식민주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동태적 풍경들을 보여준다. 만주인으로부터 농지를 빌려 논을 개간하는 데 따른 숭한 어려움을 겪어내는 재만조선인들의 삶을 향한 욕망은 만주국의 중심부의 삶, 즉 식민지 근대화로 인한 근대적 도시의 정태적 풍경으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만주국의 변두리에서 약소자들끼리 공생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 장자위푸가 반식민주의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전략적 거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태준은 <이민부락견문기>에서 장자위푸에 대한 이러한 성찰적 문제의식을 <농군>에서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군>의 장자위푸는 ‘만주국 중심부=식민지 근대화’에서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정태적 풍경의 공간과 대척점에 있는, ‘만주국 변두리=반식민주의 저항의 전략적 거점’의 가능성이고, 그곳에서 만주의 약소자들은 식민지 근대를 극복하는 동태적 풍경의 힘을 발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군>의 결말은 ‘만보산 사건’에 대한 조작을 제국의 시선으로 형상화한 게 아니라, 도리어 만주국 변두리가 갖는 반식민주의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태준의 서술전략으로 인식하는 게 온당한 해석일 것이다.

Ⅲ. 만주국의 식민 경영과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 한설야의 <대륙>

1. 만주국의 민간인 자본가, 그 식민주의적 욕망에 대한 응시

일제말 반식민주의의 저항적 서사의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작품이 한설야의 장편 <대륙>이다. 비록 <대륙>이 식민지 종주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창작된 작품이지만, <대륙>이 갖는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는 예사롭지 않다. KAPF의 맹원이었던 한설야는 KAPF가 해체된 1930년대 후반 이후 “당시의 문학이 절망과 환멸의 문학으로 일색화되는 것을 막아주”²⁴⁾는, 그리하여 일본의 동아시아 식민지 지배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그는 이른바 우회적 글쓰기를 통해 일제에 협력하지 않는 소극적 형식의 저항을 취한다.²⁵⁾ 사실, 한설야는 일관성을 갖고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 지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²⁶⁾ 그의 <대륙>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만주국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적확히 응시하면서 만주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통치가 갖는 모순과 균열에 주목한다.

<대륙>에서 특이한 점은 재만조선인을 작품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만주특수(滿洲特需)²⁷⁾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24) 하정일, 「1930년대 후반 한설야 문학과 자기 성찰의 깊이」, 『한설야 문학의 재인식』(문학과상연구회 편), 소명출판, 2000, 77쪽.

25) 김재용, 「제3장 한설야-〈대륙〉과 우회적 글쓰기」,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참조.

26) 이에 대해서는 한설야 문학 전반을 다룬 고명철, 「한설야 문학의 일제에 대한 비협력 및 저항의 맥락」, 『탈식민주의를 넘어서』(민족문학연구소 편), 소명출판, 2006 참조.

27) 조선에서 만주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 대부분은 경제적 측면을 부각한 것으로, 만주특수와 관련한 글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日支事變 擴大와 戰時經濟體制」(『조광』, 1937. 10), 「事變과 金融의 장래」(『조광』, 1937. 11), 「北支資源開發의 諸問題」(『조광』, 1938. 3), 「만주가서 돈 벌

여 만주의 주요한 자원 중 금광을 개발하고자 하는 제국의 민간 자본가들의 욕망을 세밀히 추적하고 있다. 한설야가 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한설야는 작품에서 민간 자본가들의 만주의 금광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데 대해 서사적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만주국을 향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자연스레 드러내면서, 정작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감추고 있다. 그것은 만주의 변방인 토산자(土山子)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을 금광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욕망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예의주시해야 할 게 있는데, 한설야가 <대륙>의 이와 같은 서사를 통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일제의 만주국을 지배하는 통치에 대해 우회적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주국은 조선과 같은 헌병과 일본군에 의한 군정통치의 방식이 아니라 친일매관세력을 적극 양성·활용함으로써 식민주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자본가를 통해 지배하는 게 효과적인데,²⁸⁾ 한설야는 만주국에 대한 일제의 이 같은 식민주의 경영의 핵심을 예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설야가 <대륙>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식민주의 경영을 실천하는 민간인 자본가가 만주국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세밀히 탐색하는 일이다. <대륙>에 등장하는 민간인 자본가들은 오야마, 하야시, 고토 등 모두 3명이다. 우선, 오야마와 하야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들은 제국의 대재벌과 같은 소수독점자본에 의해 주도

나면?: 원탁회담.」(『삼천리』, 1936. 8). 그런데 이러한 만주특수는 어느날 갑자기 조성된 것은 아니다. 1920년대 후반 세계공황의 여파는 1930년대 초반 조선을 경제 대공황에 돌입하게 하였으며, 일제는 '日鮮滿蒙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조선은 조공업지대를, 만주는 농업지대를, 일본은 정공업지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232-233쪽 참조.

28) 이에 대해서는 임성모, 「만주국협화회의 대민지배정책과 그 실태」, 『동양사학연구』 42집, 1993, 100-101쪽 참조.

되는 개발이 아니라 “자유 이민의 정신 아래”²⁹⁾ 만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존공영”(22쪽)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것만을 놓고 보면, 오야마와 하야시는 만주국의 민족협화가 지닌 근본정신에 충실한 민간 자본가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민족협화와 충돌하는 제국의 식민주의 담론에 깊이 침윤되어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가령, 간도에 파견된 항공대의 육군기가 만주의 창공을 비행하는 것을 보며, “마적이나 반일 만군도 비행기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거야.”(12쪽)라고 무심결 뱉은 말과, 마적이 출몰하는 변방의 밀림지대 공기의 “독소를 뽑아 대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26쪽)라고 하는 말에서, ‘만주의 변방=밀림지대=독소=마적=반일 만군’의 의식을 통해 민족협화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제국의 우월성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또한 만주의 변방에서 금광을 개발하는 것을 미국의 금광 개발과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자연스레 인식한다. 여기에는 일본인 민간 자본가들의 금광 개발의 성격을 미국의 금광 개발이 표상하는 것, 즉 미국 동부 지역에 주거하는 백인 문명의 힘을 활용하여 미개발(혹은 야만) 상태로 남아 있는 미국 서부 지역의 금광을 개발함으로써 근대의 문명 세계를 확산시켰다는 것을 전범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말하자면, 만주 변방에서의 금광 개발은 만주의 중심부(혹은 제국주의 문명)에서 변방으로 그 근대적 문명을 전파하기 위한 근대적 개척정신에 의한 것으로 미화되는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제의 민간 자본가들이 만주국을 상대로 한 제국주의적 시선이 투영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륙>의 곳곳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민간인 자본가 오야마와 하야시의 입장이 한 편으로는 민족협화의 근본정신을 갖고 있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주의를 내면화한 제국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한설야에 의해 포착된 만

29) 한설야, 「대륙」,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일제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2』 (김재용·김미란·노혜경 편역), 역락, 2003, 20쪽. 이하 이 작품의 부분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각주 없이 본문에서 (쪽수)만을 표기한다.

주국에서 충돌하는 식민주의 지배의 모순이며 균열이고, 한설야는 이 점을 놓치고 있지 않다.

한설야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륙>의 작중 인물인 만몽모직회사의 사장 고토를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고토 사장은 자신의 여비서로 채용된 만주인 마려를 제국주의 지배자의 시선으로 본다. 그의 시선은 ‘힐끗거리는 시선’³⁰⁾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마려에 대한 이 시선이 야말로 만주국이 무력에 의한 군정통치의 방식이 아닌 민간 자본가의 경제개발 욕망에 의해 식민 경영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마려는 단순히 <대륙>에 등장하는 총명한 만주 여인으로서 만주국 경제개발에 협력하는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고토 사장과 같은 식민 경영의 민간 자본가가 만주를 개발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식민의 대상과 같은 역할을 맡아, 제국의 음험한 지배적 욕망(과 시선)의 실체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고토 사장이 오아마와 하야시의 금광 개발을 위한 자금원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환기해둘 필요가 있으며, 고토 사장은 금광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고 수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신이 설 때 개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 말하자면, 고토 사장은 민간인 자본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바, 만주국을 향한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 정책의 흐름에 예민하다. 이러한 고토 사장과 같은 민간인 자본가가 만주의 개발에 대해 취하는 제국주의적 시선을 한설야는 마려와의 관계를 통해

30) 고토 사장이 마려에게 보내는 ‘힐끗거리는 시선’은 작품 곳곳에서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몇 대목을 소개해본다. ① 초점을 여자의 옷 너머에 두고 천천히 얼굴과 다른 부분을 더듬어가며 음미하는 것이 그의 취중 페미니즘이었다.(49쪽) ② 사장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녀의 가슴을 안경 너머로 보고 마치 여자의 ‘초점’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여자는 정말 처녀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처녀가 아니라는 검은 선을 멋대로 그려보는 것이었다.(49쪽) ③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마려를 힐끗힐끗 바라보았다.(51쪽) ④ 켈련을 피우면서 마려의 매력적인 옆 얼굴을 힐끗힐끗 훑쳐보았다.(74쪽)

드러낸다. 제국의 식민 경영에 협력하는 것 같지만, 기실 한설야는 만주국에서 제국의 식민 경영에 복무하는 민간인 자본가의 식민주의적 욕망을 명철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2. 연애의 서술전략, 식민의 관계를 내파(內破)하는 새로운 전망

그런데, 한설야의 <대륙>이 지닌 반식민주의적 저항 서사의 가치는 만주국의 식민 경영을 주도하는 민간 자본가의 제국주의적 시선의 실체를 부각시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비록 한설야의 저항은 소극적 형태를 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제말 혹독한 검열을 피해가면서 그가 의도하는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설야는 오야마와 마려의 민족과 종족, 그리고 국적을 초월한 사랑의 서사로 담아내고 있다. 한설야는 오야마와 정략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일본 여성 유키코와 오야마의 아버지가 자민족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채 만주국의 민족협화에 크게 위배된다는 것을 과감히 비판한다. 이를 위해 한설야는 오야마의 입을 빌려 오야마의 아버지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유키코의 마려에 대한 민족적 차별의 문제점을 신랄히 꼬집는다. 오야마는 만주국 여타의 식민주체들과 달리 마려에 대한 배타적 시선을 넘어 사랑한다. 그런가 하면, 마려 역시 오야마 일행이 마적에게 붙들렸을 때 오야마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 의해 오야마 일행의 목숨을 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오야마와 마려는 제국의 주체와 타자의 관계로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대륙에 불기 시작한 가장 아름다운 무엇”(128쪽)을 공유하는 상호주관적 존재로서 “은혜도 원한도 없는”(156쪽) 사랑의 형식으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한설야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대의 관계가 아닐까. 비록 젊은 남녀의 사랑의 형식을 취하고 있되, 한설야는 이 낭만적 사랑의 형식을 통해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 즉 제국주의적 질서로 재편되는 식민의 관계가 아닌, 이 관계를 내파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질서가 와해되는, 아직 만주

국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하지만 만주국에서 꿈꿔볼 수 있는 만주국의 건국 이념인 ‘민족협화’, ‘왕도낙토(王道樂土)’, ‘대동(大同)’ 세계를 소설적 전언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³¹⁾ 그럴 때, 다음과 같은 대목은 일본 제국의 식민 경영을 위한 새로운 논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종족중심주의 폐쇄된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대륙이 지닌 상호주관적 존재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반식민주의적 저항 서사의 맥락으로 전도(顛倒)시켜 이해하는 게 온당하다.

“유키코 뿐만이 아니라 원래 대륙이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위치가 유리한 곳에 있다는 점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나는 일본인의 성격 개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나 도장으로서 대륙을 예찬하고 싶다. 확실히 시대는 새로운 성격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오면 다른 어디에 있을 때보다 우리들은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된다. 확실히 대개조가 필요하다. 호홉이 너무 작고 선이 너무 얇아.”

“맞아. 우물 안에 있으면 어디까지나 바깥세상을 모르는 법이지. 우리

31) 김재용은 <대륙>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틀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여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한 서사로 읽어낸다. 그리하여 “오족협화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비판하고 이를 넘어선 진정한 국제주의를 보여주는 것”(김재용, 『협력과 저항』, 240쪽)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진정한 국제주의’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느냐인데, 김재용은 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가 하면, 윤대석은 “일본의 일부 전향 사회주의자가 ‘신체제’를 통해 꿈꾸었던 국가 사회주의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215쪽)라고 추정하는데, 이것은 한설야를 ‘전향 사회주의자’로 선험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무리하게 한설야를 일본의 전향 사회주의와의 동일성을 찾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러한 윤대석의 논리구조야말로 식민주의를 내파하고자 하는 한설야의 의도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당시의 동아신질 서론에 깊이 개입되어 그것과 사고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항’과는 거리가 멀었다.”(윤대석, 같은 책, 219쪽)고 평가하면서, 결국 한설야의 <대륙>을 제국의 시선에 포획된 것으로 읽는다. 여기서 필자는 한설야가 만주국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만주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 경영으로 인해 만주국 건국 초기의 이념인 ‘민족협화’, ‘왕도낙토’, ‘대동’의 근본정신이 퇴색되어간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들 대학시절에는 자네 동급생들까지 우리들을 만주 고로하고 불러 이단자, 아니 심한 녀석은 이국인 취급을 했어. 맹자의 설을 빌려 말하면 남만 격설이지. 우리 만주에서 온 사람들을 말이야.”

“자네, 오늘날에도 섬나라 쇼비니스트들(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은 그렇다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를 짚어질 신일본의 성격은 반드시 대륙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해.”

“그래. 확실히 지금은 어느 큰 전환기에 서 있지.”

오야마는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160쪽)

작품의 표면상 1930년대 후반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아공영(大同亞共榮), 팔굉일우(八紘一宇)로 개조되는 듯한 제국의 시선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한설야가 의도한 것은 “동아협동체론을 통해서 새로운 주체를 모색하고자 했던 작가의 욕망과 좌절”³²⁾을 서사화하는 게 아니라, 제국의 식민주의를 견고히 지탱시켜준 식민주의 담론과 식민 경영의 방식이 지닌 모순과 내부 균열을 통해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제국의 혹독한 내부 검열의 시선을 피해가기 위해 주도면밀히 선택한 연애의 서술전략이 지닌 서사적 가치다.³³⁾

IV. 맺음말

만주국 건국 이후 만주특수에 따른 만주에 대한 유별난 관심은 작가

32) 김성경, 위의 글, 157쪽.

33) 따라서 이러한 한설야의 서술전략을 곡해한 채 <대륙>에서 보이는 연애가 “아시아인들의 인종적 협화를 계도할 목적을 주인공의 발화라는 표면적인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다.”(김성경, 위의 글, 144쪽)라고 하든지, “한설야는 이 연애의 서사를 통해서 동아신질서 구상의 ‘일-중 제휴’를 주제화하고 있다.”(김성경, 같은 글, 147쪽)라고 하는 평가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만주국은 독립국이되, 일본 제국의 비공식적 식민지이며, 복합적 민족국가의 성격을 지닌바, 만주국이 지닌 국제적 개방성과 탈국민국가의 속성은 1930년대 후반 파시즘 체제의 전횡이 더욱 가속화되는 조선의 식민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식인에게는 물론 민중에게도 급부상하는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런데, 만주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는 민족협화, 선만일여, 내선일체 등의 식민주의 담론을 내세워 조선과 식민의 통치방식이 다를 뿐, 만주국 또한 일본 제국의 식민 경영의 일환으로 삼으면서, 국책이민자인 재만조선인을 조선과 또 다른 차별적 대우를 통해 식민주의 지배를 강화한다. 이태준의 단편 <농군>과 한설야의 장편 <대륙>은 이러한 만주의 현실을 응시하면서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의 가능성을 모색한 문제작이다.

이태준과 한설야의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국의 시선을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몰각할 때, 그들의 작품은 제국의 시선에 포획된 작품으로 전략한다. 분명, 만주를 배경으로 다룬 <농군>과 <대륙>은 작품의 표면상 만주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적 식민 경영의 논리를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농군>에서 주목해야 할 서술전략이 <농군>보다 먼저 씌어진 <이민부락전문기>를 고려해볼 때, ‘만보산 사건’을 <농군>에서 재배치한 것이라든지, 만주의 변두리인 장자위푸란 공간이 갖는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맥락을 전유하는 것을 통해 <농군>은 만주국의 민족협화, 선만일여, 내선일체가 갖는 식민지 담론들 사이의 내적 충돌로부터 식민주의의 모순과 균열을 읽어내고자 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식민주의를 내파(內破)할 수 있는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한설야는 <대륙>을 통해 만주국이 민족협화의 근본정신을 훼손

손하고 있는 가운데, 만주국에서 제국의 식민 경영에 복무하는 민간인 자본가의 식민주의적 욕망을 명철히 꿰뚫고 있다. 그러면서 한설야는 비록 일본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주국의 틀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 못하되, 이태준처럼 제국의 시선을 취하면서, 종족과 국적을 초월한 사랑의 연대를 통해 일본 제국의 식민주의로 포착할 수 없는 민족협화, 왕도낙토, 대동 세계를 향한 꿈을 꾀다. 이 또한 이태준의 서술전략에서 의도하듯, 한설야 역시 제국의 시선을 자연스레 '되받아치기'함으로써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주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만주는 이태준과 한설야에게 조선에서와는 다른 서사적 구현을 통해 식민주의를 내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반식민주의적 저항의 서사를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필자의 과제는 만주를 배경으로 한 여타의 서사물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른바 만주 서사가 갖는 이러한 반식민주의적 가치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주제어 : 만주, 재만조선인, 반식민주의, 저항의 서사, 식민주의, 민족협화, 선만일여, 내선일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태준, <농군>,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민족문학연구소 편), 역락, 2007.
- 이태준, <이민부락건문기>,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민족문학연구소 편), 역락, 2007.
- 한설야, <대륙>,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일제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2』(김재용 · 김미란 · 노혜경 편역), 역락, 2003.

2. 논문 및 단행본

- 고명철, 「한설야 문학의 일제에 대한 비협력 및 저항의 맥락」, 『탈식민주의를 넘어서』(민족문학연구소편), 소명출판, 2006.
- 고토 겐이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 『아시아』, 2008년 봄호.
- 김성경,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민족문화사연구』, 2004년 봄호.
-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 김 철,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9집, 2002.
- 박영석, 『만보산 사건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 배주영,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한국학보』, 2003년 가을호.
- 신주백, 「만주인식과 파시즘 국가론」,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방기중 편), 혜안, 2005.

- 윤대석, 「‘만주’와 한국문학자」,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 윤휘탁, 「<만주국>의 ‘2등 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집, 2001.
- 임성모, 「만주국협화회의 대민지배정책과 그 실태」, 『동양사학연구』 42집, 1993.
- 하정일, 「1930년대 후반 한설야 문학과 자기 성찰의 깊이」, 『한설야 문학의 재인식』(문학과상연구회 편), 소명출판, 2000.
- ,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출판부, 2007 개정판.
- 호사카 유우지,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제이앤씨, 2002.
- 홍기돈, 「식민지 말기 이태준의 소설과 백산 안희제」, 『근대를 넘어서려는 모험들』, 소명출판, 2007.

<Abstract>

‘Manchuria Narration’ in the Late of
Japanese Imperialism as Anti-colonial
Resistance of East Asia

- in the <Nonggun(농군)> by Lee Taejun and <Daeruk(대륙)>
by Han Seolya

Ko, Myeong-Cheol

Japanese imperialism on Manchuria state intended to make Manchuria colony of Japanese empire standing colonialism argument such as *national harmony*(民族協和), *seonmanilye*(鮮滿一如), and *naeseonilche*(內鮮一體). In this process, Japanese imperialism reinforced colonialism control through discriminative treatment toward Chosun people living in Manchuria. A short story <Nonggun(농군)> by Lee Taejun and a novel <Daeruk(대륙)> by Han Seolya were problem novels staring at this reality of Manchuria and seeking for narrative possibility of anti-colonial resistance.

A narrative strategy to pay attention to <Nonggun(농군)> should consider <Leeminburakgynmungi(이민부락건문기)> that was written earlier than <Nonggun(농군)>. Like reassignment ‘Manbosan Event(만보산 사건)’ in <Nonggun(농군)>, <Nonggun(농군)> intended to read contradiction and break of colonial narration with *national harmony*(民族協和), *seonmanilye*(鮮滿一如), and *naeseonilche*(內鮮一體) of Manchuria through anti-colonial resistant context in Jangjaweofu(장자위푸) of Manchuria state. That is to seek for new

possibility of anti-colonial resistant narration that could implode colonialism.

While Manchuria state destroyed a basic mind of *national harmony* (民族協和). Han Seolya's <Daeruk(대륙)> had an insight to colonial desire of a private citizen capitalist who devoted to colonial management of an empire in Manchuria state. As Han Seolya did not deny completely a frame of Manchuria state that had close relation to Japanese empire, he had a dream for an accompanied world, *national harmony*(民族協和), capital paradise that could not be caught by colonialism of Japanese empire through love transcending race and nationality. Like intending to narrative strategy of Lee Taejun, Han Seolya also tried to a new possibility of anti-colonial resistant narration by striking back naturally a sight of an empire.

Manchuria could be a strategic position to Lee Taejun and Han Seolya to newly seek for anti-colonial resistant narration with a possibility to implode colonialism through narrative realization that was different from in Chosun.

Key Words : Manchuria, Chosun people living in Manchuria,
anti-colonialism, resistant narration, colonialism,
national harmony(民族協和), *seonmanilye*(鮮滿一如),
naeseonilche(內鮮一體)